

비탄의 시대 기록한 네 작곡가의 ‘소리 연대기’

음악 비평가 제러미 아이클러 ‘애도하는 음악’ 출간



“음악은 사라진 시대의 목소리이자, 인간이 잃어버린 시간의 가장 완전한 증언이다.”

역사학자이자 음악 비평가인 제러미 아이클러가 펴낸 ‘애도하는 음악’ (뮤지트리칼·장호연 옮김)의 중심에는 네 명의 음악가가 있다. 음악으로 역사를 증언한 쇼스타코비치, 쇤베르크, 슈트라우스, 브리튼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언어를 살았지만, 공통의 질문을 품었다. ‘예술은 인간의 비극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네 개의 대답이다.

쇼스타코비치부터 브리튼까지

침묵·불협화음·고전·합창으로

답안낸 역사의 기억

소련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쇼스타코비치는, 예술이 감시와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역사의 폭력 속에서 ‘침묵의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교향곡 제9번’ (1937)은 겉으로는 ‘사회주의적 영웅주의의 찬가’로 해석됐지만, 실

제로는 억압된 시대의 아이러니와 비탄을 담은 작품이었다. 청중들은 ‘슬픔 속의 환희’를 들었고, 권력은 ‘충성의 음악’을 들었다. 이중의 의미로 작동하는 그의 음악은 전체주의 시대의 숨 막히는 침묵을 기록한 일기와도 같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쇤베르크는 조성의 해체, 즉 불협화음과 12음 기법의 창시자로서, 음악사의 혁명적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다. 그가 1980년대에 발표한 ‘모세와 아론’ (Moses und Aron)과 ‘현악 4중주 2번’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라 전쟁과 망명, 신의 침묵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하틀러의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쇤베르크는 미국으로 망명했고, 그 경험은 음악 안에서 ‘하나의 조성(질서)’이 무너지는 감각으로 표현됐다.

슈트라우스는 나치 시대를 통과하며 복잡한 평가를 남긴 인물이다. 그는 체제와 일정한 타협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예술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의 후기 걸작 ‘메타모르포젠’ (Metamorphosen, 1945)은 나치 패망 직후, 폐허가 된 독일 문화에 대한 애도이자 참회의 음악으로 읽힌다. 고전적 형식 아래 흐르는 깊은 슬픔은, 한 시대가 자기 자신을 위해 연주한 장송곡이었다.

영국의 브리튼은 전쟁 세대를 대표하는 평화주의자였다. 그의 대표작 ‘전쟁 레퀴엠’ (War Requiem, 1962)은 죽은 자와 산 자, 적과 아군이 함께 부르는 화해의 합창이었다. 이 책은 브리튼의 음악을 ‘애도와 화해의 형식’으로 읽는다. 그의 음악은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억의 형식, 즉 인간이 서로를 기억함으로써만 회복할 수 있다는



아이클러아트

믿음의 표상이었다.

쇼스타코비치는 침묵으로, 쇤베르크는 불협화음으로, 슈트라우스는 고전의 잔향으로, 브리튼은 화해의 합창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음악은 기억의 마지막 형식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라는 것.

저자는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수백 년의 음악사를 가로지르며, 음악이 인간의 상처를 기억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그리고 비극에 대한 추모의 자세를 생각한다. 음표와 선율을 통해 역사의 내면, 즉 ‘인간이 잃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아픈 손가락-임린 저자

임린 시인의 시 세계는 김소월의 서정적 정통성과 백석의 사물시 계통, 최근 한국 시단에서 두루 활발한 ‘존재론적 경향’ 등을 아우른다. 그의 시편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고통과 상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 상황이나 사물을 다시 일으키려는 생의 보고서다. 상실·쓸쓸함·존재의 견뎌를 시작 중심에 두고 펼쳐려 한 일관된 시 세계가 감성적이지 않고 정서적 깊이를 담보하는 언어적 대장정임을 그만의 언어로 특질화하고 있다. 김중 시인은 이 시집에 대해 “화려한 언어 대신 침묵과 절제된 리듬으로 인간적 쓸쓸함을 견디고 넘어서 도달한 서정시학의 한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시와사람·1만2천원



▲검꽃으로 피어나는 손-임영자 저자

임영자는 이번 시집에서 남도 특유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질감 어린 상상과 사유를 통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감각과 감성이 어우러진 담백한 언어로 긴 시간 다듬은 첫 시집을 완성해 남도 시문학의 중요한 매력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김규성 시인은 “임영자의 시세계는 즉흥적 이미지와 심미적 풍경에 국한하지 않고 삶에서 배어나오는 익숙한 풍경과 존재에 대한 성찰, 삶과 죽음, 명암, 풍경의 형상 재현 등 다양한 시제와 내용으로 심도 있게 발현된다”고 평했다.

/시산맥·1만2천원



▲독서를 영입합니다=구한희 저자

교보문고 소설 MD이자 e커머스영업1파트장인 구한희가 자신의 직무와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출판 편집자, 영업자, 마케터, MD 지망생 그리고 책과 관련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독자도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다. 작은 출판사 관계자라면 편집자, 마케터, 영업자, 대표 할 것 없이 신간이 나오는 순간 기쁨과 걱정스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 책은 북토크, 문학상 특별전, 굿즈, 리커버, 단독 이벤트, ‘MD의 선택’ 등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책을 더 오래 살게 하려는 고투의 과정을 특유의 솔직함과 유머로 풀어냈다.

/북바이북·1만8천원



▲루돌프-유준재 글·그림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마친 날, 루돌프의 빨간 코는 빛을 잃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낮설고 두려운 일상을 견디던 그의 앞에 새 루돌프 ‘루키’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한다. 거듭된 거절에도 루키는 돌아가지 않았고, 마침내 둘의 조금 불편한 ‘함께 살기’가 시작된다. 루돌프는 루키에게 ‘루돌프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일러주고, 그 과정에서 둘은 함께 서로의 속도를 배워 간다. 루키를 산타 마을로 떠나보낸 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눈사태가 산타 마을을 덮치게 된다. 과연, 루돌프는 어떻게 이 위기에 맞설 것인가.

/웅진주니어·1만8천원

조생구 원장, 40년 의업 노하우 ‘건강칼럼’ 완간



지난 1권 이어 2·3권 동시 출간...27일 북콘서트 수익금 기부

조생구 목포 한사랑병원장이 40여 년간의 의료 현장 경험과 통찰을 담은 저서 ‘건강칼럼 2’와 ‘건강칼럼 3’ (예사랑)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지난 7월 ‘건강칼럼 1’을 펴낸 지 4개월여만으로, 저자가 그동안 방송과 광주매일신문 등 다수 언론에 기고해 온 1천300여 건의 건강 칼럼 중 약 530건을 엄선해 엮은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조 병원장은 책을 통해 “현대인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특별한 병이 없어도 ‘건강 나이’가 많으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 나이를 짧게 유지하려면 가족력과 환경요인 중교정 가능한 위험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정기 검진 등 3박자를 갖추면 누구나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남대학교 의학박사 출신인 조 원장은 1987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 목포에 조소아과를 개원했다. 이후 1999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아우르는 한사랑병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특히 개원 초기 1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 강행군을 펼쳐 지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진료 현장을 지키는 동시에 목포MBC 생방송 출연, 각종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올바른 건강 정보 확산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기부천사’로 통하는 조 병원장은 2019년 개원 20주년을 맞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터 회원으로 가입,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최근에는 목포상공회의소

와 협약을 맺고 세쌍둥이 가정 지원에 나서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행보는 이번 출판 기념행사로도 이어진다. 조 원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목포극동방송에서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는다.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 이웃을 돕는 선교 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조생구 병원장은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칼럼을 통해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원장은 목포한사랑병원장을 비롯해 ▲목포펜엘교회 사무장 ▲목포극동방송 시청자위원 ▲전남 138청 소년지원단 위원 ▲Heart and Hands NGO 이사 ▲YMCA 전국연맹 실행이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정위원 ▲목포공생원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목포=정혜선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